

지역 수출기업 “해상운임·물류 차질 가장 우려”

■ 광주상의, 중동발 리스크 긴급 설문조사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물류비·유가 동반 상승 우려 기업 절반 “대응책 마련 중”...해상운임 보조 지원 등 요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상 운임 상승과 물류 차질 가능성이 커지자 광주지역 수출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물류 불안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지역 경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동과 교역 중인 지역 수출기업 37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9%가 가장 우려하는 영향으로 '해상운임 상승

및 물류 차질·지연'을 지목했다.

이어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에너지 비용 증가(54.1%), 수출·수입 거래 및 납기 차질 또는 대금 결제 지연(40.5%), 매출·수주 감소와 바이어 신뢰도 저하 등 거래 위축(40.5%), 환율 급변동 영향(21.6%) 등이 뒤를 이었다. 중동 정세 불안이 물류·에너지·환율 등 복합적인 비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송 길목이다. 국내 수입 원유의 약 70%가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통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에너지 가격과 물류 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중동발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물류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국내 제조업과 수출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 제조기업의 경우 원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가 동시에 발생해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대응 상황을 보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별다른 대응 계획 없음(29.7%), 상황

안정 시까지 거래 중단·보류(24.3%), 바이어·공급선 다변화(8.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기업이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뚜렷한 전략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거나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에 물류난 해소 및 해상운임 보조 지원(54.1%), 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대출기한 연장(35.1%), 수출입기업 피해 보상(35.1%),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원유 비축 지원(29.7%), 신속한 현지 정보 제공 및 위험 경보 체계 강화(29.7%)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선박 공격과 통행 마비 상황이 발생한 것은 지역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 등 민생경제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원유 수입 안정과 물류비 지원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상의도 중동 정세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동 사태’ 수출 비상...중기부, ‘긴급 물류바우처’ 추진

수출 기업 피해 64건...71% “운송 차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대책 마련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주요 공항 및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물류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대금 결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최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와 함께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품목별 수출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피고 수출 중소기업 피해·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국가 수출 피해·애로를 접수한 결과(5일 오후 6시 기준) 총 80개사 중 64건의 피

해·애로 및 우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해·애로 사항으로는 운송차질 발생 71%(22건), 대금 미수금 38.7%(12건), 물류비 증가 29%(9건), 출장 차질 16.1%(5건), 계약보류 12.9%(4건) 등으로 영공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 중동 바이어 방한 취소, 선적 수출보험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따로 우려 사항으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운송 차질 우려(66.7%)와 바이어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 어려움(15.2%) 등이 거론됐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동 지역에 특화된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대외 시장 발굴을 위한 전략적 수출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수출 상담·전시회를 지원하며, 물류비 한도를 높이고 빠른 지원을 위한 절차도 향후 진행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증 공급 등 금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최근 고환율로 원부자재 수입 비용이 급등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이달 중 ‘선적 특례별기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 자금 대출 원금 거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롯데마트, 중소기업 베트남 판로 연다 롯데마트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수출전략포럼 베트남 진출 수출상담회’를 성료했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롯데마트는 현지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과 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공동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 중소기업 20개사와 베트남 현지 및 국내 유통 바이어 48명이 참여했다.

로또 6/45

10 15 19 27 30 33

1214회 로또 1등 12명·당첨금 각 24억3000만원

제121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5, 19, 27, 30,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4'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4억315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99명으로 각 491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618명으로 13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78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92만1649명이다.

연합뉴스

광주노동청, 산업현장 안전점검 ‘꼼꼼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합동점검...행정지도 등 병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광주 광산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광안,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유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포함한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래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 '5대 중대재해'와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적으로 살폈다. 회사와 미세먼지

경보 상황에 대비한 작업장 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재단기 구동부 방호장치 해체, 폐코팅액 보관용기 밀폐조치 미실시, 산업용 로봇 일부 구간 방호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최신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작업 방법과 현장 안내문 번역본 게시, 폐기를 보관장소 이동 설치, 보호구 착용 관리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 원우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십시오.

광남일보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광주 롯데호텔(구 라마다상무호텔)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3월~7월 / 2학기: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ll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이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원 <트렌드코리아> 공저자
--	--	---	---	---	---